

# 《世說新語》를 통해 본 魏晉名士와 佛敎

- 殷浩를 중심으로 -

金鎮永\*

## <目 次>

1. 머리말
2. 魏晉名士와 佛敎
3. 맺음말

## 1. 머리말

東漢 말부터 隋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400여년에 해당하는 魏晉南北朝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오랜 분열과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漢代에 형성되었던 전장제도는 붕괴되었고, 오히려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세력가들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지식인들 역시 굴욕적인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의 혼란은 학술사상 뿐만 아니라 종교적 생활에 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儒家를 극단적으로 숭상하던 풍조에서 淸談과 佛敎를 숭배하는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東漢 이후 중국 학술사상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佛敎는 전래 초기 중국 전역에 걸쳐 널리 퍼지지 못하였으나 혼란시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종교적 안식처로 선택되었으며, 또한 혼란시기라는 중국내부의 요인 이외에 구마라습과 같은 많은 인도의 승려들이 중국으로 건너와

\* 仁德大學 中國語科 助敎授

서역의 佛經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禪宗과 같은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고 선교하여 결국 魏晉시기에 이르러 佛敎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통치집단 내부의 서로 속고 속이는 기만과 정권쟁취를 위한 암투는 끊임 없이 없었고, 허위와 보복이 난무하는 급박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士人들은 화를 면하기 위해 山水에 은거하여 유유자적하거나 飲酒와 服藥에 도취되어 放蕩한 생활을 하는 등 처세의 방식이 크게 바뀌어 당시 淸談의 분위기 역시 널리 만연되었다. 佛學과 玄學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한 철학사상이지만 修心과 養性, 생활행위 등에 있어서는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고, 게다가 이론상에 있어서도 虛無思想과 空無思想이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淸談家들은 玄思를 좋아하여 佛敎의 이치를 玄學과 혼용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하였으며, 또한 佛經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승려들 역시 佛法과 玄理가 서로 교감하는 점이 있어 玄學으로 佛敎를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up>1)</sup> 그 결과 名士들과 高僧들 사이에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高僧들 역시 名士들과의 談論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佛敎와 玄學의 융합이라는 독특한 문화현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아울러 魏晉이라는 亂世 속에서 俗世를 벗어나려는 사람들과 통치계층의 지지로 佛敎는 흥성할 수 있었다.

《世說新語》는 전문 佛敎 서적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魏晉시기 전체 佛敎의 면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주로 東晉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약 80조의 佛敎의 성향의 고사를 통해 당시 크게 유행한 淸談의 분위기 속에서의 그 특징을 짐작해 볼 수는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佛敎의 성향의 고사를 통해 魏晉 佛敎의 면모를 고찰하고, 아울러 魏晉시기 대표적 淸談家인 殷浩와 관련된 고사를 적출 집중하여 그 인물을 중심으로 名士들의 佛敎에 대한 입장과 태도 등을 살펴 佛學과 玄學이 융합되었던 당시 독특한 문화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1) 朴美齡,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p.84.

## 2. 魏晉名士와 佛敎

東漢 이전에 이미 佛敎가 中國에 유입되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東漢 시기에 정식으로 中國에 전래되었다는 학설이 지배적이다. 漢의 明帝가 꿈에 자극받아 사신을 파견하여 佛法을 구하였다는 전설이 佛敎 전래의 대표적 학설인데, 그 전설에 의하면 永平 7년(64)에 明帝가 꿈에서 金人을 보고 이튿날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태사인 傅毅가 대답하기를, 황제가 꿈에 본 서방의 도인은 佛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2)</sup>. 이에 明帝가 蔡愔 등 18명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佛道를 구해 오게 하였다. 3년 후 蔡愔 등은 서역에서 迦葉摩騰과 竺法蘭이라는 두 승려와 함께 佛像 및 佛經을 구하여 백마를 타고 洛陽으로 돌아 왔다. 明帝는 洛陽城의 서쪽에 그들을 위해 특별히 白馬寺를 건립하였고, 두 승려는 그곳에서 〈四十二章經〉을 번역하여 佛敎가 비로소 漢나라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이 전설은 추정할 만한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明帝 이전에 이미 佛敎가 中國에 전래되었을 수도 있다. 《後漢書》에 楚王 劉英이 「황로의 학설을 읊조리고 佛敎를 숭상한다(誦黃老之微言, 尙浮屠之仁祠)」라는 기록이 있어 당시 상층사회에서 佛敎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미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sup>

漢末 이래의 혼란한 정치와 잇따른 전란으로 당시 환경과 민중의 요구에 따라 佛敎는 종교적 안식처로 선택되었다. 魏晉시대의 思潮를 대표하던 玄學은 원래 종교는 아니었지만 신비적인 종교적 색채가 짙었고, 佛敎의 空無와 玄學의 虛無는 인식론 상에 있어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었기에 魏晉 名士들과 高僧들의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佛學과 玄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2) 東漢末의 《牟子理感論》에 「옛날 孝明皇帝가 꿈에서 神人을 보았는데, 몸에서 빛을 내며 궁전 앞을 날아 다녔다. 크게 기뻐하여 이튿날 군신들에게 “이 신은 어떤 신인가?”하고 두루 물어 보았더니, 傅毅가 대답하길 “신이 듣기에 天竺에 得道한 자가 있다고 하는데, 佛이라 불립니다. 허공을 날아 다니고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하니 아마도 그 신인 것 같습니다.(昔孝明皇帝, 夢見神人, 身有日光, 飛在殿前, 欣然悅之. 明日, 博問群臣, 此爲何神? 有通人傅毅曰, 臣聞天竺有得道者, 號之曰佛, 飛行虛空, 身有日光, 殆將其神也.)」라는 기록이 있다.

3) 夏乃儒 主編, 황희경, 황성만 共譯, 《중국철학문답》, 서울 : 한울, 1991 pp.143-144 참조.

왕승상(王導)이 양주자사에 제수되었을 때, 수백 명의 빈객이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아 모두들 기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오직 임해의 임씨라는 손님과 몇 명의 胡人만이 흡족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공(王導)이 소변보러 갔다 오면서 임씨 곁을 지나치며 말하길 “그대가 떠나오니 임해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없겠지요”라고 하자, 임씨가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 또한 胡人들 앞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을 튕기며<sup>4)</sup> 말하길 “蘭閣<sup>5)</sup>! 蘭閣!”라고 하자, 여러 胡인들이 함께 웃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sup>6)</sup>

고좌도인은 한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묻자, 간문제가 말하길 “웅대의 번거로움을 간략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했다.<sup>7)</sup>

처음에 江南으로 옮겨와 東晉의 왕실은 많은 문제에 봉착하여 위기에 처해 있었다. 건국의 民心을 안정시켜야 했고, 북쪽 이민족의 남하도 저지해야 할 뿐 아니라 南北 士族들의 관계 역시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王導는 以吳制吳의 책략과 유화정책으로 南北의 갈등 해소에 주력하였는데, 佛敎 역시 王導가 선택한 유화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한편 高坐道人은 본명이 시러밀로 인도의 왕족 출신의 승려였다. 漢語를 사용하지 않는 그의 거만한 모습은 簡文帝에게 玄學的 웅대방법 때문이라고 오히려 높게 평가되었으며, 成帝는 高坐道人이 죽자 무덤가에 高坐寺라는 절을 세우기도 하였다.<sup>8)</sup> 이는 제왕들의 佛敎와 승려들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고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통치계층들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佛敎와 승려들을 존중하였으며, 정권이 비교적 안정된 簡文帝 시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求知와 博愛의 목적으로 佛敎를 숭상하여 사회적 요구와 통치계층의 옹호 속에 佛敎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

4) 彈指는 佛敎의 풍습으로 許諾, 歡喜, 警告 등을 나타내는 동작이다. 金長煥 譯注, 《世說新語》, 서울: 살림, 1996, 上卷 政事편 제12조 譯注 참조.

5) 蘭閣는 胡語로서 蘭奢라고도 하며 칭찬의 뜻을 담고 있다. 일설에는 梵語 aranya의 音譯인 阿蘭若, 阿練若, 阿蘭那의 일종으로 보아 그 뜻을 閑靜處, 空寂 등으로 풀기도 한다. 金長煥 譯注, 《世說新語》, 서울: 살림, 1996, 上卷 政事편 제12조 譯注 참조.

6) 王丞相拜揚州, 賓客數百人並加露接, 人人有悅色; 唯有臨海一客姓任, 及數胡人爲未洽. 公因便還, 到過任邊云: 「君出, 臨海便無復人,」任大喜悅. 因過胡人前彈指云: 「蘭閣, 蘭閣,」群胡同笑, 四坐並權. 《世說新語》 政事편 제12조.

7) 高坐道人不作漢語, 或問此意, 簡文曰: 「以簡應對之煩,」, 《世說新語》 言語편 제39조.

8) 《世說新語》 言語편 제39조, 劉孝標 注引, 《塔寺記》 참조.

었다. 따라서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佛敎의 성향의 고사는 약 80조에 이르는데, 주로 이 시기인 東晉中期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名士들이 佛敎와 高僧들을 존중하였음은 당연하다.

치가빈(郗超)이 道安 화상의 덕망을 흠모하여, 쌀 천 곡을 보내주고 몇 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정성스런 마음을 담았다. 그런데 도안은 답장에서 다만 이르길 “쌀을 보내주시니 먹을 것에 의지하는 처지가 더욱 번거롭게 느껴집니다”라고만 했다.<sup>9)</sup>

유공(庾亮)이 일찍이 절에 들어가 누워 있는 불상을 보고 말하길 “이 사람은 중생을 구제하느라 피곤한 것이로다”라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명언이라 여겼다.<sup>10)</sup>

환상시(桓彝)는 사람들이 심공(竺法深)에 대해 비평하는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말하길 “그 분은 이미 훌륭한 명성이 있으며 게다가 고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저의 선친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그를 비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다.<sup>11)</sup>

이상의 고사에서 당시 高僧들은 이미 상당한 명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名士들의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그들의 佛敎와 승려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佛敎의 교리에 대해 상당한 이해가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장현지와 고부는 고화의 외손과 친손으로 모두 어려서부터 총명했다. 고화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늘 고부를 낮게 여겨 치우치게 편애하자 장현지가 자못 못마땅해 했다. 당시에 장현지는 9살이었고, 고부는 7살이었다. 한 번은 고화

9) 郗嘉賓欽崇釋道安德問，餉米千斛，修書累紙，意寄親勸。道安答，直云：損米，愈覺有待之爲煩。，《世說新語》 雅量篇 제32조.

10) 庾公嘗入佛圖，見臥佛，曰：「此子疲於津梁。」于時以爲名言。《世說新語》 言語篇 제41조.

11) 桓常侍聞人道深公者，輒曰：「此公既有宿名，加先達知稱，又與先人至交，不宜說之。」，《世說新語》 德行篇 제30조.

가 이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의 입적도를 보았는데, 부처의 제자들 가운데 우는 자도 있었고, 울지 않는 자도 있었다. 고화가 그 까닭을 두 손자에게 묻자, 장현지가 말하길 “친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울고, 친애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고부가 말하길 “그렇지 않습니다. 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울지 않고, 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라고 했다.<sup>12)</sup>

은중군(殷浩)이 小品般若經을 읽으면서 [의심나는 곳에] 200개의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그것은 모두 정미하여 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부분이었다. 은중군은 일찍이 지도림(支遁)과 함께 그것을 논하고자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小品般若經이 남아 있다.<sup>13)</sup>

비록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고는 하나 겨우 7살된 어린 아이가 佛敎의 진리에 근접하고 있는 사실과 東晉中期 대표적 清談家인 殷浩의 교리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보아 당시 佛敎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魏晉 佛學과 魏晉 玄學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발전한 철학사상이지만 사상 및 당시 사회분위기에 있어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다. 佛學과 玄學의 핵심이론은 “空”과 “無”로서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부정하는 唯心主義 사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佛學과 玄學 모두 당시 지배계층인 문벌사족들의 통치 도구의 하나로 이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玄學은 농후한 정치적 색채로 통치계층에 이용되었으며, 佛學은 脫俗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정치적 형식을 탈피하여 정권에 밀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清談家들은 佛敎의 이치를 玄學과 혼용하여 佛經을 연구하기도 하였고 승려들 역시 佛法과 玄理가 서로 교감하는 점이 있어 당시 유행하던 玄學으로 佛敎를 전파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sup>14)</sup> 그 결과 高僧들이 名士들과의 談論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佛敎와 玄學이 융합되는 독특한 문화현상이

12) 張玄之·顧敷, 是顧和中外孫, 皆少而聰惠, 和並知之, 而常謂顧勝; 親重偏至, 張頗不懌. 于時張年九歲, 顧年七歲; 和與俱至寺中, 見佛般泥洹像, 弟子有泣者, 有不泣者, 和以問二孫. 玄謂: 彼親故泣, 彼不親故不泣.」敷曰: 「不然! 當由忘情故不泣, 不能忘情故泣.」, 《世說新語》 言語篇 第51조.

13) 殷中軍讀小品, 下二百籤, 皆是精微, 世之幽滯, 嘗欲與支道林辯之, 竟不得. 今小品猶存. 《世說新語》 文學篇 第43조.

14) 朴美齡,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p.84 .

생겨나게 되었다.

장자의 소요유는 옛부터 난해하여 여러 명현들이 연구했지만 곽상과 상수를 뛰어 넘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다. 지도림(支遁)이 백마사에서 풍태상(馮懷)과 함께 담론하다가 소요유를 논하게 되었는데, 지도림은 탁월하게 두 사람을 능가하는 새로운 해석을 하고 여러 명현들과는 다른 견해를 세웠다. 이것은 모두 여러 명현들이 연구했지만 통달하지 못한 바였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지도림의 해석을 쓰게 되었다.<sup>15)</sup>

지도림(支遁)과 허연(許詢) 등이 함께 회계왕(簡文帝)의 齋頭에 참석했다. 지도림이 법사가 되고 허연이 도강이 되었다. 지도림이 하나의 해석을 하면 온 좌중이 만족해하지 않음이 없었고, 허연이 하나의 논박을 하면 모든 사람이 손뼉을 치며 기뻐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들 두 사람의 뛰어난에만 감탄할 뿐 그 이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가려내지 못했다.<sup>16)</sup>

高僧들은 당시 유행하던 老莊思想의 義理나 語彙로 佛經의 내용을 해석하여 쉽게 이해시키려는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老莊思想의 핵심 이론인 無로 佛敎의 空을 해석하는 格義<sup>17)</sup>이다. 즉, 佛敎의 근본사상이 空인 것에 대해서 老莊思想은 無인 것이다. 空과 無를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有的 부정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와 같이 老莊的인 색채를 띤 佛敎를 格義佛敎라고 하는데, 格義佛敎는 초기단계의 佛敎로서 魏晉 佛敎의 대명사가 되었다. 위의 고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高僧이 담론에서 老莊思想을 論하는 모습이나, 高僧과 名士가 清談의 방식으로 佛經에 대해 함께 담론하는 모습들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다. 그 결과 누가 僧侶이고 누가 名士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15) 莊子逍遙篇, 舊是難處, 諸名賢所可鑽味, 而不能拔理於郭向之外. 支道林在白馬寺中, 將馮太常共語. 因及逍遙. 支卓然標新理於二家之表, 立異義於衆賢之外, 皆是諸名賢尋味之所得. 後遂用支理. 《世說新語》文學傳 제32조.

16) 支道林. 許瑒諸人, 共在會稽王齋頭. 支爲法師, 許爲都講. 支通一義, 四坐莫不厭心; 許送一難, 衆人莫不拊舞. 但共嗟詠二家之美, 不辯其理之所在. 《世說新語》文學傳 제40조.

17) 格義의 格은 '量', '재다'의 뜻이다. 梵語와 老莊의 용어를 비교하여 가늠하고, 후자를 전자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초기의 漢譯에서는 空을 無로, 涅槃을 無爲로, 보리(菩提)를 道로, 眞如를 本無로 돌렸다. 이와 같은 譯經을 읽는 자는 부지불식 간에 老莊的인 이해를 하게 된다. 黃秉國 編著, 《老莊思想과 中國의 宗教》, 서울 : 文潮社, 1987, p.154.

정도로 僧侶들이 玄學에 심취하게 되고 名士들 또한 佛敎에 심취하게 되어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名士의 佛僧化’와 ‘高僧의 名士化’<sup>18)</sup>로 殷浩와 支遁이 각각 대표적 인물이었다.

殷浩(305-356)<sup>19)</sup>는 字가 淵源이며, 陳郡 長平(지금의 河南 西華의 東北) 사람이다.

殷浩는 건식과 풍도가 淸遠하였으며, 약관의 나이에 美名이 있었다. 특히 玄言에 능했으며, 숙부인 殷融과 함께 老子와 易經을 좋아했다. 殷融과 殷浩가 口談을 펼치면 연사에서는 殷浩가 더 나왔고, 글을 짓는 것은 殷融이 더 뛰어났다. 殷浩는 이로부터 풍류담론의 으뜸이 되었다.<sup>20)</sup>

위의 《晉書》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殷浩는 건식과 풍도가 淸遠하였으며, 젊어서부터 淸談으로 이름이 높아 당시 명사들로부터 존경받았다. 《世說新語》文學편 전체 104조 대부분의 고사는 淸談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 중 殷浩의 淸談과 관련된 고사는 총 18조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타 篇目에 殷浩의 淸談이 자주 보이고 있다.

은호는 이치를 논하는데 뛰어났고 담론이 치밀했으며 老子와 易經에 정통했기 때문에, 명사들이 모두 그를 존경했다.<sup>21)</sup>

사진서(謝尚)가 젊었을 때 은호가 청담에 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를 찾아갔다. 은호는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기에 그를 위해 여러 논제의 뜻을 제시하면서 수백 언을 강술했는데, 치밀한 논지가 훌륭한 데다 조리 있는 논변이 탁월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귀를 번쩍 트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진서는 정신을 집중하고 생각을 기울이니라 자신도 모르게 온 얼굴에 땀이 흘러 내렸다. [이것을 본] 은호는 시중에게 친척히 말하길 “수건을 가져와 사랑(謝

18) 寧稼雨는 그의 저서인 《世說新語與中古文化》,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1994, p.139, p.145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 《晉書》 卷77 〈殷浩傳〉 참조.

20) 浩識度淸遠, 弱冠有美名, 尤善玄言, 與叔父融俱好老易. 融與浩口談則靡屈, 著篇則融勝, 浩由是爲風流談論者所宗.

21) 浩能言理, 談論精微, 長於老易, 故風流者皆宗歸之. 《世說新語》賞譽편 제86조, 劉孝標 注引, 《中興書》.

尙)의 얼굴을 닦아 드리도록 하라”라고 했다.<sup>22)</sup>

왕사주(王胡之)가 은중군(殷浩)과 함께 담론을 하고 나서 탄식하길 “나는 마음 속 깊은 생각까지 일찍 이미 쏟아 부어 보여주었지만, 은중군의 형세는 광대한(浩) 강물과 같아서 그 여러 연원(源)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했다.<sup>23)</sup>

왕중조(王濛)와 유진장(劉惔)이 은중군(殷浩)을 찾아가 담론을 했는데, 담론이 끝난 뒤 [왕중조와 유진장은] 함께 수레를 타고 떠났다. 유진장이 왕중조에게 말하길, “연원(殷浩)은 정말 훌륭합니다!”라고 하자, 왕중조가 말하길 “그대는 완전히 그의 운무 속에 빠져버렸군”이라고 했다.<sup>24)</sup>

자유로운 담론활동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행해졌으나 통상 한 名士의 집에 밤에 모여 공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자리에서 청담을 즐겼다.<sup>25)</sup> 文學편 제47조와 方正편 제53조의 내용으로 보아 주로 殷浩의 집에 모여 담론하였으며,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殷浩는 뛰어난 청담과 다양한 교유관계를 통한 담론활동으로 당시 名士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東晉의 大清談家라 할 수 있다.

殷浩는 사고의 맥락이 두루 통하는 뛰어난 사고력으로 어떠한 일에도 통달하였으며, 특히 才性 문제에 정통하여 簡文帝(司馬昱)가 극찬할 정도로 필적할 상대가 거의 없었다.

세간에서 은중군(殷浩)을 평하길 “사고의 맥락이 두루 통하여 양숙자(羊祜)에 견줄 만하다”라고 했다.<sup>26)</sup>

은중군(殷浩)은 사고력이 뛰어나 무슨 일에도 통달했지만 才性 문제에 특히 정통했다. 四本論을 언급했다 하면 곧장 끓는 해자를 두른 철옹성처럼 도무지

22) 謝靈運少時, 聞殷浩清言, 故往造之. 殷未過有所通, 爲謝淵雅者義, 作數百語, 既有佳致, 兼翰墨豐蔚, 甚足以動心駭聽. 謝注神傾意, 不覺流汗交面. 殷徐語左右: 取手巾與謝拭面.」《世說新語》文學편 제28조.

23) 王司州與殷中軍語, 歎云: 「己之府奧, 蚤已傾寫而見; 殷陳勢浩汗, 衆源未可得測.」《世說新語》賞譽편 제82조.

24) 王仲祖·劉眞長造殷中軍談; 談竟, 俱載去. 劉謂王曰: 「淵原眞可!」, 王曰: 「卿故墮其雲霧中.」《世說新語》賞譽편 제86조.

25) 范子燁 著, 《中古文人生活研究》,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1, pp.174-175 참조.

26) 世目殷中軍: 「思緯淹通, 比羊叔子.」《世說新語》品藻편 제51조.

공략해 들어갈 수 없는 형세였다.<sup>27)</sup>

지도림(支遁)과 은연원(殷浩)이 함께 상왕(司馬昱)의 거처에 있을 때, 상왕이 두 사람에게 말하길 “시험삼아 한 번 담론을 펼쳐보시오. 하지만 才性論 만큼은 아무래도 연원이 二陵이나 函谷關과 같은 견고함을 갖추고 있는 듯 하니, 당신은 신중히 하시오”라고 했다. 그래서 지도림은 처음 담론을 시작할 때 방향을 바꾸어서 그 문제를 피했지만, 서너 번 논쟁이 오가자 자기도 모르게 才性論의 와중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이것을 본 상왕이 지도림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웃으며 말하길 “이것은 본래 그의 독무대이니 어찌 맞겨룰 수 있겠소?”라고 했다.<sup>28)</sup>

한편, 品藻편 제51조에서 은호를 「세간에서 은중군(殷浩)을 평하길 사고의 맥락이 두루 통한다(世目殷中軍, 思緯奄通)」라는 네 글자로 품평하고 있다. 또한 殷浩 이외에 品藻편 제87조에서 劉瑾이 「공은 높고 태부는 깊습니다(公高, 太傅深)」라는 한 글자의 표현으로 桓玄과 謝安의 특징을 개괄하고 있으며, 賞譽편 제6조에서는 「배혜는 淸通하고, 왕융은 簡要하오(裴楷淸通, 王戎簡要)」라고 하여 두 글자로 인물을 품평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魏晉南北朝 이후 隋, 唐, 宋, 元, 明, 淸은 물론이고 현대와 당대 문학에서도 채용하여 어느 시기, 어느 작가의 작품과 예술적 특색을 개괄하는데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世說新語》는 주로 ‘目’이나 ‘題目’, 또는 ‘謂’, ‘道’, ‘稱’, ‘曰’ 등의 방식으로 인물품평을 진행하여 한 자 혹은 몇 자로 인물의 특징을 개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문학비평과 美學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淸談의 名士로서 殷浩는 군사와 정치적 역량은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

왕중조(王濛), 사인조(謝尚), 유진장(劉惔)이 함께 단양의 묘소로 가서 은양주(殷浩)를 만나봤는데, [은양주는 은거하려는] 확고한 뜻을 갖고 있었다. 돌아온 뒤에 왕중조와 사인조가 이르길 “연원(殷浩)이 산에서 나오지 않으니 백성들

27) 殷中軍雖思慮通長, 然於才性偏精, 忽言及四本, 便若崩也鐵城, 無可攻之勢. 《世說新語》文學편 제34조.

28) 支道林·殷淵原俱在相王許, 相王謂二人: 「可試一交言; 而才性殆是淵淵有弱之固, 君其慎焉!」支初作, 改輒遠之; 數四交, 不覺入其中. 相王撫肩笑曰: 「此自是其勝場, 安可爭鋒!」《世說新語》文學편 제51조.

을 어찌 한단 말이오?”라고 하면서 깊이 근심하고 탄식하자, 유진장이 말하길 “그대들은 정말로 연원이 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근심하시오?”라고 했다.<sup>29)</sup>

은연원(殷浩)은 [모친의] 묘소에 거의 1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당시 조야에서는 그를 관중이나 제갈량에 견주었으며, 그가 출사하느냐 출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江左(東晉)의 흥망을 점쳤다.<sup>30)</sup>

殷浩는 모친상을 당해 336년부터 346년까지 10년 동안 丹陽에서 시묘살이를 하면서 은거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穆帝(司馬聃)가 2살의 나이로 즉위하여 황태후(褚氏)가 섭정을 하고 있었으며, 桓溫은 북벌을 통하여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좌지우지하였다. 이에 撫軍大將軍으로서 정치를 보좌하고 있던 會稽王 司馬昱은 桓溫을 견제하기 위해 殷浩를 揚州刺史로 임용하였다.<sup>31)</sup>

무군(司馬昱)이 은호에게 묻길 “그대는 정작 배일민(裴頠)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오?”라고 하자, 한참 있다가 대답하길 “당연히 [그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했다.<sup>32)</sup>

환공(桓溫)은 젊어서부터 은후(殷浩)와 명성을 나란히 하였는데 [서로 간에] 항상 경쟁심이 있었다. 환공은 은후에게 묻길 “그대는 나와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오?”라고 하자, 은후가 이르길 “나는 나와 오랫동안 지내왔으므로 차라리 [계속] 내가 되겠소”라고 했다.<sup>33)</sup>

위의 두 고사는 司馬昱이 왜 殷浩를 桓溫의 견제세력으로 선택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殷浩는 뛰어난 능력과 명성이 있었으며, 또한 殷浩와 桓溫 사이의 경쟁심을 이용하여 세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29) 王仲祖·謝仁祖·劉眞長俱至丹陽墓所省殷揚州，絕有確然之志。既反，王·謝相謂曰：「淵原不起，當如蒼生何？」深爲憂歎。劉曰：「卿諸人眞憂淵原不起邪？」《世說新語》 識鑿篇 第18조.

30) 殷淵原在墓所幾十年，于時朝野以擬管·葛；起不起，以卜江左興亡。《世說新語》 賞譽篇 第99조.

31) 傅樂成 主編，鄒紀萬 著，《魏晉南北朝史》，臺北：衆文圖書公司，1990，p.57.

32) 撫軍問殷浩：「卿定何如裴逸民？」良久答曰：「故當勝耳。」《世說新語》 品藻篇 第34조.

33) 桓公少與殷侯齊名，常有競心；桓問殷：「卿何如我？」殷云：「我與我周旋久，寧作我。」《世說新語》 品藻篇 第35조.

은중군(殷浩)이 폐출당한 뒤, 간문제(司馬昱)를 원망하며 말하길 “사람을 백 척이나 되는 누대 위에 올려놓고는 사다리를 메고 가버렸다”라고 했다.<sup>34)</sup>

東晉 穆帝 永和 8년(352) 殷浩는 前秦을 정벌하기 위해 中軍將軍, 假節, 都督揚州 徐兗青五州軍事라는 직위로 대대적인 北征을 하게 된다. 前秦의 군주 苻建의 죽음으로 이듬해 투항한 羌族 姚襄을 선봉으로 하여 洛陽을 수복하려 하였으나, 姚襄의 배신과 殷浩의 성급한 판단으로 殷浩의 군대는 대패하고 말았다. 이에 평소 사이가 나빴던 桓溫은 이를 구실로 永和 10년(354) 殷浩를 파직하여 庶人으로 강등시켜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고 司馬昱이 동의하여 결국 東陽郡 信安縣(지금의 浙江省 衢縣)으로 폐출당하였다.<sup>35)</sup> 司馬昱을 위해 出仕하여 심복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에게 버림을 받은 殷浩는 불만을 토로하며 원망의 마음을 품은 채, 그 후 佛敎를 종교적 안식처로 삼아 심취하게 된다.

은중군(殷浩)이 파직당하여 동양군으로 좌천되었을 때 비로소 佛經을 보았다.<sup>36)</sup>

은중군(殷浩)이 佛經을 보고 나서 말하길 “진리가 또한 마땅히 이것 위에 있도다!”라고 했다.<sup>37)</sup>

은중군(殷浩)이 小品般若經을 읽으면서 [의심나는 곳에] 200개의 표시를 해 두었는데, 그것은 모두 정미하여 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부분이었다. 은중군은 일찍이 지도림(支遁)과 함께 그것을 논하고자 했으나 결국 하지 못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小品般若經이 남아 있다.<sup>38)</sup>

魏晉시대의 사조를 대표하던 玄學은 원래 종교는 아니었지만 신비적인 종교적 색채가 짙었고, 佛敎의 空無와 玄學의 虛無는 인식론 상에 있어 근본적으로 공통점

34) 殷中軍廢後, 恨簡文曰: 「上人箸百尺樓上, 僂梯將去。」《世說新語》黜免篇 第5조.

35)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p.57.

36) 殷中軍被廢東陽, 始看佛經. 《世說新語》文學篇 第50조.

37) 殷中軍見佛經云: 「理應在阿堵上。」《世說新語》文學篇 第23조.

38) 殷中軍讀小品, 下二百籤, 皆是精微, 世之幽滯, 嘗欲與支道林辯之, 竟不得. 今小品猶存. 《世說新語》文學篇 第43조.

이 있었다. 殷浩는 약관의 나이에 이미 뛰어난 淸談과 탁월한 능력으로 명성이 드높아 桓溫의 견제세력으로 司馬昱에게 발탁되어 出仕하였으나 北征의 실패로 폐출당하고 난 뒤 佛敎에 심취하였다. 淸談에 뛰어났던 殷浩는 佛敎의 이치를 玄學과 혼용하거나 佛經을 깊이 연구하여 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精微하고 심오한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殷浩의 淸談은 老莊思想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상을 쉽게 흡수하고 융합하여 사과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또한 淸談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결국 그가 당시 유행하던 佛學에 심취함으로써 殷浩 자신의 淸談 수준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sup>39)</sup> 이에 佛經은 물론 向秀와 郭象보다 逍遙游 해석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 고승 支遁까지도 만나기를 두려워 할 정도의 존재가 되었다.<sup>40)</sup> 결국 東晉의 大淸談家이자 大學者인 殷浩는 佛經을 연구하고 佛敎의 이치를 玄學과 혼용하여 정신적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이끄는 선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3. 맺음말

宗白華는 그의 저서인 《美學散步》에서 《世說新語》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치문화배경 및 그 審美특징에 대해 언급하면서 魏晉南北朝가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한 시기였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럽고 美的 성취가 가장 컸던 시기였음을 지적하였다.<sup>41)</sup> 이러한 사상의 자유와 시대적 상황은 佛敎와 玄學

39) 蔣凡 著, 《世說新語英雄譜》,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pp.250-251 참조.

40) 《世說新語》文學편 제43조, 劉孝標 注引, 《語林》 참조.

41) 「漢末魏晉六朝는 중국정치에 있어 가장 혼란한 시대였으며, 가장 고통스러운 사회였다. 그러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자유스러웠으며 지혜가 풍부하고 가장 열정적인 시대였다. …… 따라서 이 수 백년 간의 시기만이 정신적인 대해방과 인격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자유를 누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속의 아름다움과 추함, 고귀함과 잔혹함, 거룩함과 사악함이 함께 극도로 발휘되었다. (漢末魏晉六朝는中國政治上最混亂, 社會上最痛苦的時代, 然而却是精神史上極自由, 極解放, 最富於智慧, 最濃於熱情的一個時代. ……只有這幾百年間是精神上的大解放, 人格上思想上的大自由. 人心裏面的美與醜, 高貴與殘忍, 聖潔與惡魔, 同樣發揮到了極

사이의 거부감을 해소시키고 함께 융합하여 새로운 사조로 진일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世說新語》는 전문 佛敎 서적이 아니지만 80조에 이르는 풍부한 佛敎의 성향의 고사를 통해 승려들의 각종 활동 및 名士들의 佛敎에 대한 태도 등 다양한 佛敎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비록 佛敎가 사상의 자유와 통치계급의 이해관계로 名士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당시 名士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종교로서의 佛敎가 아닌 이론으로서의 佛敎로<sup>42)</sup> 中國의 전통 학술사상이 해결하지 못했던 우주와 인생의 문제를 佛學 이론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고, 아울러 정신적 자유와 해탈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佛敎思想과 老莊思想, 名士와 高僧의 결합은 魏晉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함께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中國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晉書》, 臺北: 鼎文書局, 1980.  
 余嘉錫, 《世說新語箋疏》,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徐震堦, 《世說新語校箋》, 北京: 中華書局, 1984.  
 楊 勇, 《世說新語校箋》, 臺北: 正文書局, 1992.  
 金長煥, 《世說新語》(上·中·下), 서울: 살림出版社, 1996·1997·2000.  
 傅樂成 主編, 鄒紀萬 著, 《魏晉南北朝史》, 臺北: 衆文圖書公司, 1990.  
 葛曉音 主編, 《漢魏六朝文學與宗教》,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方立天 著, 《魏晉南北朝佛敎論叢》, 北京: 中華書局, 1982.  
 蔣凡 著, 《世說新語英雄譜》,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  
 寧稼雨, 《世說新語與中古文化》,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  
 朴美齡, 《世說新語中所反映的思想》, 臺北: 文津出版社, 1990.

致.)」宗白華 著,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p.208.

42) 佛敎를 종교로 신봉하였다가 조롱을 당하는 고사를 排調편 제22조와 제51조에서 각각 볼 수 있다. 제22조에서는 東晉 袁帝의 칙명으로 建康에 지은 瓦官寺라는 사찰에서 열심히 예불 드리는 何充이 阮裕에게 조롱당하고 있으며, 제51조에서는 謝萬에게 何充, 何準 형제가 조롱당하고 있다.

- 宗白華, 《美學散步》,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1.  
李澤厚 著, 윤수영 譯, 《美的歷程》, 서울: 東文選, 1991.  
柳月誕 編譯, 《高僧傳》, 서울: 자유문고, 1991.  
白壽彝 主編, 임효섭 · 임춘성 譯, 《중국통사강요》,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宮崎市定 著, 曹秉漢 譯, 《中國史》, 서울: 역민사, 1986.

### 《中文提要》

佛學和玄學是不同文化土壤上生長起來的哲學思想, 也是中國魏晉時代意識形態領域的兩大重要組成部分. 除了宗教的原因以外, 對中國文化土壤的適應和同化, 是佛教在中國扎根的決定的因素. 從接受者的角度來說, 對外來文化的認同、吸收和借鑑, 使之變為具有民族特色的自己的東西, 也是中國人吸收外來文化的成功範例. 最能表現這一歷史過程的便是魏晉時代佛學與玄學的合流. 本論文通過《世說新語》裡佛教故事考察魏晉時代佛教的面貌, 並且以大清談家殷浩為探討核心, 透過此般對人物全面且多重的分析, 可將魏晉名士之佛教收容態度以及當代的思想主流等考察.

**關鍵詞** : 世說新語, 佛教, 玄學, 殷浩

이 논문은 2009년 10월 25일에 접수되어 2009년 12월 0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12월 1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